

윤종규 “사회·고객 위한 ESG·디지털 역량 업그레이드”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

계열사 대표 등 경영진 250명 참여
부문별 전략방향, 기업문화 등 논의
“MZ세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KB금융그룹이 고객중심 경영으로
ESG·디지털 강화에 나선다.

KB금융은 지난 9일 윤종규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경영진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회의 방식으로 2021년 하반기 “그룹 경
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
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해외법인에 근무 중인 경
영진들도 참여했다.

먼저 오전에는 애널리스트를 초청
해 시장의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본 K
B의 현황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했다. 이어 그룹 경영진간 소통의
시간인 ‘경영진 타운홀 미팅’을 통해
참석자들은 미래 KB의 청사진과 부
문별 전략방향, HR/기업문화, 리더
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2021년 하반기 KB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ESG경영과 넘버원(No.1) 디지털플랫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윤 회장은 경영진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상세히 답변하며 더 나은 KB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CEO 특강에서 윤 회장은 리딩금융 그룹에 대해 높아진 기대치를 언급하며 사회와 고객을 위한 ESG경영 및 고객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환경과 사회, 주주 및 고객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ESG경영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고객을 섬기며, 고객과 더

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 그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그룹의 미션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오후 세션에는 ▲ESG ▲기업문화 ▲디지털 등을 주제로 각 담당 임원의 발제, 실행 아이디어 발표 및 토의 순으로 ‘경영 아젠다 토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는 사전에 경영진들이 주제별로 제출한 아이디어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경영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계열사 유관부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실행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다양한 업종에서 과거 영광을 누렸던 거대 기업들 중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진 사례가 많다”며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MZ세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KB 고유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늘 ‘혜택, 편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넘버원(No.1) 금융플랫폼’으로 인정받도록 전 경영진들이 결기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하반기 중점 추진 분야에 관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논의됐다”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전 경영진들이 그룹의 경영 전략 및 경영 아젠다를 공유하며, ESG경영 실천과 ‘넘버원 금융플랫폼’로의 자리매김’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김용재 고려대 교수 금융위 상임위원 임명

금융위원회는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민대 법학대학 부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금융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해상 간편심사 ‘333건강보험’ 출시

현대해상이 유병자 고객을 위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현대해상은 단기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간편한원투333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5일 이내 짧은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3가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중 ‘3년 내 입원·수술 여부’를 ‘3년 내 6일 이상 입원·30일 이상투약 여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치료 이력에 따른 유병 고객의 상품 가입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123대질병수술 및 최신 암 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객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까지 보장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1면 ‘코스피 고점 경신...’서 계속

“경기반등 모멘텀 약화 엔택트업종 다시 두각”

◆IT 제조업·중간재 등 장비업체 주목

다시 한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연출되며 시장에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기둔화 우려 속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3%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김영환 팀장은 “한국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30% 수준으로 백신 선도국 처럼 안심하기는 어려워졌다”며 “내수 소비·서비스 분야의 경우 당분간 방역 강화에 따른 업황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백신 선도국으로의 수출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정보기술(IT)가전 등 제조업과 철강 등 중간재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소외됐던 헬스케어를 추천했다.

한대훈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경기반등 모멘텀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과 실적이 긍정적인 만큼 지금의 조정은 분할매수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기반등 모멘텀 약화로 금리가 안정된 만큼 성장주의 강세가 예상되며 코로나 19재확산으로 언택트(Untact) 업종이다 시 부각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IT 부품과 장비업체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 추천했다.

/송태화 기자 aavin@

손태승 “하반기 경영 핵심 키워드 ‘속도·기업문화’”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 워크숍

기업문화혁신 TFT 발표
생명의 숲 조성사업 기부금 전달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비전홀에서 그룹사 임직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하반기 그룹 경영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모든 생활 양식이 급변하고 시장 예측이 불가능해졌다”며 “하반기 우리금융그룹이 모든 사업에서 최고의 속도를 내고, 획기적 전략으로 시장의 판을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사 임직원에게 ‘가슴 뛰는 변화, 내일을 열다, 속도를 더하다’라는 타이틀을 제시하며 속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그러면서 손 회장은 그룹 체제 출범 후 사상 최고의 실적을 시현한 1분기에 이어 상반기도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며, 임직원들을 치하하는 동시에 하

반기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속도’, ‘기업문화’를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새로운 기업문화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문화혁신 TFT의 발표와 더불어 MZ세대와의 소통 및 기업문화 혁신에 대해 구정우 교수의 강연을 청취했다.

특히 워크숍 직후에는 손 회장과 그룹 임원들이 MZ세대 직원들과 함께 세대 공감을 주제로 퀴즈를 풀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손 회장은 “MZ세대는 이제 그룹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이끄는 주축 세대인 만큼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전했다.

한편, 올해를 ESG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한 우리금융은 이날 우리금융 생명의 숲 3호 조성사업을 위한 기부금 전달 행사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ESG경영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영석 기자 ysl@

연령별로 다른 접근 방법... 20대 검찰, 30대 대출, 50대 가족

금감원 Q&A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

Q. 최근에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대인 저희 부모님도 최근 저를 사칭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연령에 따라 보이스 피싱 수법도 다른 것인가요?

A.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 금융사기범의 접근방법, 자금탈취과정 등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연령별로 특정 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대 이하의 전화로 검찰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30~40대는 문자로 금융회사를 빙자하여 저리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했으며, 50~60대 이상은 문자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경

우에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전연령대에서 금융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모르게 예금을 이체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금융사기범이 보낸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해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연령별로 금융사기 수법이 다른 만큼 연령별 취약사항에 유의하

여 금융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금융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을 편취하여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등을 받고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영석 기자